

광주시, 아이돌봄 전국 첫 48시간 추가 지원

내달 '광주형 지원사업' 시행 연간 528시간으로 대폭 늘려 이용자도 연중 추가 모집

광주시가 맞벌이 부부의 육아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을 대폭 늘렸다. 광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을 추가로 지원하는 '광주형 아이돌봄(시간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아이돌봄 사업이란 부모의 맞벌이 등

로 가정에 홀로 남은 아동을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1대 1로 안전하게 돌보아 주는 사업으로, 아동의 놀이활동은 물론 급·간식, 보육시설 등·하원, 안전 관리 및 신변처리 등을 지원한다. 이번이 시작되는 '광주형 아이돌봄(시간제) 지원사업'은 아이돌봄 정부 지원시간인 연간 480시간을 모두 사용한 가정에 추가로 연간 48시간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돌봄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해 양육공백이 우려되는 저소득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되는 '광주형

아이돌봄(시간제) 지원사업' 도입으로 광주 시민들은 연간 528시간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광주형 아이돌봄(시간제) 지원사업' 신청은 현재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기관으로 문의하면 되며, 간단한 신청서 작성 후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광주시는 아이돌봄서비스 신규 이용자도 연중 추가 모집한다.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 한시간당 6500원으로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료의 최대 75%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동주민센터나 아이돌봄서비스 사업단 1577-2514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 황인숙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은 "아이돌봄 서비스는 야간이나 주말 등 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아이를 돌보아 주는 서비스로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급변 광주형 아이돌봄(시간제) 지원사업 도입으로 이용료 부담 없이 아이들을 추가로 돌보아 줄 수 있게 돼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고, 아동의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는 아셈 문화장관회의를 앞두고 이달 초 광주시 동구 운림동 전통문화관에서 조리사들을 상대로 위생 및 서비스 교육을 실시했다. <광주시 제공>

음식·숙박 품품 준비 '아셈회의' 성공 견인

"광주의 문화·맛 알린 계기"

광주시가 '제7차 아셈(ASEM) 문화장관회의'를 앞두고, 음식·숙박 인프라에 대한 사전 점검·관리로 성공 개최를 견인했다는 평가다. 시는 지난 4월부터 6월 24일까지 숙박 및 음식료 사전 안전점검반을 꾸렸다. 17개반 66명(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5명, 명예공중위생감시원 4명, 공무원 17명)으로 꾸린 안전점검반은 ▲지정 숙소(홀리데이인 광주, 라마다호텔) 및 상무지구 주변 숙소 ▲오·만찬장 음식 조리업소 ▲행사장 주변 식품접객업소 등 총 693개소를 대상으로 단계별 사전 위생점검 및 친절 서비스 위생교육을 실시

해 위생수준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철저히 대비했다. 또한, 회의개최 주간(6월 20일~24일)에는 주·야간 숙박·식음료 상황실과 현장 식음료 감시반을 운영, 광주를 찾는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남도의 맛과 풍류를 느낄 수 있도록 숙박·식품사고 제로화에 주력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아셈 문화장관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 결과 숙박·식품사고 없는 안전한 행사로 마무리됐다"면서 "각국의 문화정책결정자들에게 세계적 규모의 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의 문화·맛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한여름 밤의 모기장 극장 광주시가 첫째·셋째주에 중외공원(오후 5시~밤 9시30분)에서 문을 여는 '뽀머 아트피크닉'이 시민들에게 이색적인 주말행사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주말 친구와 연인, 가족이 잔디밭에 돛자리를 펴고 누워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모기장 영화관 '시네마 아트'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오는 7월 2일에는 '재즈와 와인과의 만남'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그린카전시회' 국제전시연맹 인증 획득

광주시가 주최하는 '국제그린카전시회(Green Car Korea)'가 전시산업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전시연맹(UFI·Union des Foires Internationales)으로부터 국제인증 획득했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국제전시연맹(UFI)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한 뒤 국제회계법인의 감사 절차를 거친 뒤 이날 국제인증 획득을 통보받았다. 이번 UFI 인증 획득으로 국제그린카전시회는 국제 수준의 친환경차량 전문 전시

회로 평가받았고, 광주시는 국내 주요 전시관센터가 획득한 UFI 인증 건수 중 가장 많은 6건을 획득했다. 1925년 설립된 국제전시연맹(UFI)은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전시산업 분야 최대 국제기구로, 세계 83개국 670여 개의 전시 전문기관이 가입돼 있다. UFI 국제인증은 국제회계법인으로부터 최근 3년간 전시회 해외 참가업체, 바이어 수 등 까다로운 자격 심사를 통과한 전시회에만 부여된다. 현재 국내 500여 개의

전시회 가운데 31개 전시회만 UFI 인증을 획득했다. 오는 7월7일 개막하는 '2016 국제그린카전시회'는 국내 최초 '그린 카'를 주제로 한 전문전시회다. 국제포럼, 구매정책설명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KOTRA 주관 'Global TransporTech'도 동시에 개최해 200여 명의 해외 바이어를 대거 초청하는 수출상담회를 열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또한, 2016 광주국제로봇산업전도 함께 진행됐다.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로봇 등이 총출동하고, 빛고를로봇페스티벌과 '빛고를 가족 과학상자 창작물 경연대회' 등 행사에서 다양한 로봇의 세계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순경중 광주시 자동차산업과장은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관내업체 국내외 판로 개척과 고용창출 증대는 물론, 광주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의 대시민 홍보와 예비타당성 통과 등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 온라인 민원창구 통합 운영

시민참여플랫폼, 내일부터

광주시는 분산된 온라인 민원창구를 하나로 통합하고, 광주공동체의 다양한 의견과 활동을 담을 수 있는 시민참여플랫폼 서비스를 오는 30일부터 제공한다. 시민참여플랫폼 서비스는 ▲민원과 제안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바로응답'(<http://baroengdap.gwangju.go.kr>) ▲다양한 형태로 활성화되고 있는 공동체의 디지털 허브 기능을 맡게 될 '바로소통'(<http://barosotong.gwangju.go.kr>) ▲생활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바로투표'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이중 '바로응답'은 광주시 대표 홈페이지와 각 사업소 홈페이지 등에 흩어져 있는 107개 민원 및 제안 게시판을 통합해 시민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한 곳에서

접수해 결과까지 볼 수 있는 광주형 민원통합시스템이다. 민원·제안의 접수와 처리 시스템이 일원화되면 시민에게 더 빠른 결과를 전달하고, 담당 공무원은 개별 시스템에서 일일이 확인하는 불편함에서 벗어나 한 곳에서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바로소통'은 시민들의 다양한 답론을 담아내는 '토론'과 함께 광주 시민사회 또는 여러 커뮤니티들이 자원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융합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로 구성됐다. 광주시정과 광주공동체 발전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바로소통'에서 자유롭게 답론을 제시해 토론할 수 있으며, 450여 개 마을공동체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독립적이면서도 교류가 가능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꾸밀 수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화순 도곡, 무인텔, 동업 / 인수 / 투자 하실 분!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번지
도곡은천지구 내 숙박시설 (콘도 겸)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객실 52개
- 시세 / 감정가 - 60억
- 동업 / 투자 / 매매 - 협의
- 경매로 낙찰
 용 10억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현재 가장임차인 / 허위유치권
 명도소송 진행중
- 명도 후 50억원 이상 매매 가능
- 소유자 H 010-3605-5000

경매투자

▶ 투자 하실 분! 공동 투자 가능 연 20% 수익 보장

▶ 비법 배우실 분! 특수물건만 취급 교육비 등 1200만원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주)오천경매
H. 010-3605-5000